

# SK하이닉스 최첨단 안전관리시스템 기반으로 반도체 선두기업 도약

ESH체험관 설립 등 환경안전보건분야에 적극적 투자

SK하이닉스는 PC, 모바일 등 각종 IT기기의 필수부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비롯해 CIS와 같은 시스템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84년 국내 최초로 16Kb S램을 시험 생산한 이래, 세계 최초·최소·최고속·최저전압의 혁신적인 제품을 연이어 시장에 선보이며 이제는 반도체업계의 선두기업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2위,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D램 부문 1위 등이 그 증거다.

우리 식탁의 기본인 쌀처럼 반도체는 IT산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더불어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이제 IT제품의 성능을 구분 짓는 잣대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고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이곳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상당하다. 환경안전 관리는 바로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는 주축이다. 이런 신념에 따라 이곳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매진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분야 최정상 기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본사를 찾아가봤다.

취재 연습기 기자 skyway@safety.or.kr



**사내 안전전문가 양성의 요람 'ESH체험관'**

최근 개관한 'ESH체험관'은 SK하이닉스의 환경안전에 향한 열의와 관심의 상징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 중에서도 환경안전 관련 체험관을 설치, 유지하고 있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다. 운영과 관리에 적잖은 인력 및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기업들 대부분이 설치를 망설이는 것이다. 즉 아직도 많은 경영진들이 입으로만 안전을 외칠 뿐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경영진은 달랐다.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 보고 망설임 없는 투자에 나선 것이다. 경영진의 의지가 투영된 만큼 SK하이닉스 ESH체험관의 시설은 매우 전문적이고 첨단 기술이 총동원됐다.

반도체라인에 설치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해 놓은 것은 물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사용에서부터 열연기 체험, 흡연 및 음주의 위험성, 근골격계질환 예방법 등을 다채롭게 익힐 수 있다.

신총수 환경안전팀장은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비상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이론교육을 벗어나 체험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안전을, 구성원에게 행복을, 고객에게 감동을**

SK하이닉스의 안전관리는 '사업장 내 안전을, 구성원에게 행복을, 고객에게 감동을'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원류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스마트한 혁신적 안전경영 ▲비상대응체계 및 실행력 강화 ▲고객만족 및 지원 등 4대 핵심전략을 수립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팀별 자율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종합안전지수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PSM(공정안전관리)과 화학물질 허가제, 독성가스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실천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안전지킴이 활동, 안전개선 회의, 동종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휴먼에러 예방 TFT활동, 안전점검표준서



수립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SK하이닉스는 12,000여 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라인 내 공정사고 및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성원의 안전의식도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다.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반도체업계에서 SK하이닉스는 최첨단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안전 및 비상대응장치를 원격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물론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ERT체계에도 빈틈이 없다.

또한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가스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관리도 근로자가 쉽고 편하게 사전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전산화했다. 안전교육의 경우도 온라인, 오프라인 체계를 모두 유지해 각각의 교육적 장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광대한 중앙안전관리시스템(CMS)이다. 이는 사업장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비상이나 응급상황 시 긴급 출동을 하여 신속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신총수 팀장은 “구성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할 수 있도록 첨단 안전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상생의 안전문화 조성

SK하이닉스의 향후 계획은 구성원은 물론 지역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로 ESH체험관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에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협력업체의 경우 안전보건 공생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안전보건수준을 SK하이닉스에 버금갈 정도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종합안전지수에 환경지수를 포함한 새로운 자율 ESH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인 'Golden Rule'을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Life Cycle Mapping 및 스마트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대피 및 대응현황관리 전산화시스템, 사고 발생이력관리시스템 등 글로벌 기업의 면모에 맞는 첨단 안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안전 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SK하이닉스. 이곳의 원대한 계획이 앞으로 산업현장에 어떤 혁신의 바람을 불어올지 기대가 된다. ☺



#### mini interview



신총수 환경안전팀장

### '환경안전'은 도덕과 윤리 실천의 첫 단계

예전에 기업들은 환경안전분야를 소비와 지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의 윤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환경안전분야를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생산과 이윤추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의 행복을 바탕으로 지역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생을 추구할 때 기업 역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필수요소가 환경과 안전보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SK하이닉스는 안전경영을 기업의 철학으로 내세우고 환경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업무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우수한 환경안전활동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사업장을 소수의 환경안전부서 직원들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사내 구성원 모두가 환경안전은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내 동료, 내 가족, 내 회사는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고 제거하면 회사는 물론 지역 전반에 항구적인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끝으로 환경안전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덕분에 회사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어떤 업무를 선택하게 되도 자신 있게 '환경 안전'을 택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집시다. 2013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사업장이 무재해를 달성하기 기원합니다.